

전자 FTA체결 교역증대효과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전세계 교역보다 최대 1.8배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칠레의 FTA 발효 5주년을 기념하여 기 체결된 FTA의 수출입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FTA 체결 상대국(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과의 교역은 절대적·상대적으로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후 상대국과의 연평균 교역증가율은 20.5%~31.6%로, 발효전의 3.6%~19.8%에 비해 많게는 8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발효후 교역 절대금액도 발효전 대비 많게는 3.8배(칠레)에서 적게는 1.5배(아세안)까지 증가했다.

특히, 각각 동기간 전세계 교역증가율과 비교할 경

〈발효전후 교역액 및 교역증가율 비교〉

(단위 : 백만불, %)

구 분	발효전 3년간 평균 (A)		발효후 (B)		교역 증가비율(B/A)	
	금액	연평균증가율	금액 ¹⁾	연평균증가율 ²⁾	금액	증가율
칠레	1,442	6.9	5,508	24.3	3.82배	3.52배
싱가포르	10,869	19.8	23,472	20.5	2.16배	1.08배
EFTA	3,005	3.6	6,169	31.6	2.05배	8.78배
아세안 ³⁾	50,488	16.7	72,995	25	1.45배	1.50배

1) 각각 칠레는 5년차('08.4월~'09.2월), 싱가포르는 3년차('06.3월~'09.2월), EFTA는 2년차('07.9월~'08.8월), 아세안은 1년차('07.6월~'08.5월)의 교역액임

2) 각각 칠레는 발효후 5년간('04.4월~'09.2월), 싱가포르는 3년간('06.3월~'09.2월), EFTA는 2년간('06.9월~'08.8월), 아세안은 1년간('07.6월~'08.5월)의 연평균 증가율임

3) 아세안은 태국을 제외한 수치임

*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우, 전세계 교역보다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1.3배 ~1.8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과는 수출이, EFTA와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기반이 미미한 칠레와는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발효전 $\Delta 5.4\%$ 에서 발효후 35.2%로 급증했다.

<발효후 연평균 교역액 증가율>

(단위 : %)

구분	대상대국(A) ¹⁾	대세계(B) ²⁾	A/B
칠레	24.3	13.4	1.81배
싱가포르	20.5	13.6	1.47배
EFTA	31.6	19.0	1.67배
아세안	25.0	19.2	1.30배

- 1, 각각 발효후 칠레는 5년간, 싱가포르는 3년간, EFTA는 2년간, 아세안은 1년간 연평균 수치임
 2, 각각 한-칠레 FTA 발효후 5년간, 한-싱가포르 발효후 3년간, 한-EFTA FTA 발효후 2년간, 한-아세안 FTA 발효후 1년간 동기간의 대세계 연평균 교역증가율임
 3, 아세안은 태국을 제외한 수치임 / *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과는 수출이 증가

저가품을 수입하고 고부가품을 수출하는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진 아세안과는 수출입이 고르게 증가했고, 반면, 무관세/저관세 국가인 싱가포르 및 EFTA로의 수출은 발효전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제조업 전품목 무관세, EFTA의 제조업 평균관세율은 0.6~2.3% 수준이다. 오히려 EFTA로부터는 기계류·나프타 등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증가로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발효전 0.7%에서 발효후 45.2%로 급증했다.

교역 증대 요인으로는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외에도 투자확대, 인지도/신인도 제고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발효후 연평균 교역액 증가율>

(단위 : %)

	수출		수입	
	발효전 3년간	발효후 ¹⁾	발효전 3년간	발효후 ¹⁾
칠레	$\Delta 5.4$	35.2	14	18.8
싱가포르	23.3	24.7	15.3	13.9
EFTA	7.8	12.4	0.7	45.2
아세안 ²⁾	17.7	26.8	15.7	23.0

- 1, 각각 발효후 칠레는 5년간, 싱가포르는 3년간, EFTA는 2년간, 아세안은 1년간 연평균 수치임
 2, 아세안은 태국을 제외한 수치임

對아세안 투자금액 크게 증가

아세안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아세안 FTA 활용을 목표로 한 투자가 증가하여, 아직 본격적인 관세철폐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對아세안 투자금액(신고기준, 백만불) (자료 : 수출입은행)은 ('05) 913 → ('06) 3,714 → ('07) 6,166 → ('08) 5,859이다.

한-칠레 FTA 외에는 아직 인지도나 활용율이 높지 않음을 감안시, 향후 FTA 체결국과의 교역증대 잠재력은 더욱 클 것으로 평가된다. FTA 발효국 인지도(무역협회, '08.6월)는 칠레 87.9%, 아세안 61.0%, EFTA 37.4%이다. FTA 특혜관세 활용률(KIEP, '09.2월)은 수입에서 칠레 93.3%, 싱가포르 31.4%, EFTA 41.9%, 아세안 27.0%이고, 수출에서 칠레 98.7%, 아세안 14.1%이다.

상대국이 중국·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과 FTA를 체결했는지 여부가 수출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칠레의 경우 중-칠레 FTA 발효('06.10월) 및 일-칠레 FTA 발효 이후('07.9월) 주요품목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칠레 시장 점유율은 중국('06) 10.0% → ('07) 11.4% → ('08) 12.0%이고, 한국('06) 4.7% → ('07) 7.2% → ('08) 5.6%이며, 일

〈발효후 업종별 대상대국 연평균 수출입증가율¹⁾〉

구분	대상대국 수출증가율 > 대세계 수출증가율	대상대국 수입증가율 > 대세계 수입증가율
자동차/부품	아세안(77.3%), 칠레(20.5%)	아세안(66.0%), EFTA(52.9%)
섬유	아세안(13.2%), 싱가포르(3.7%), 칠레(3.4%), EFTA(5.4%),	아세안(17.1%)
전기전자	칠레(15.4%)	아세안(18.8%), 싱가포르(14.5%), EFTA(51.2%)
철강	아세안(32.3%), 싱가포르(24.4%), EFTA(48.4%), 칠레(35.8%)	EFTA(114.9%), 칠레(276.1%)
일반기계	아세안(35.3%), 칠레(44.3%), 싱가포르(19.6%)	EFTA(28.8%)
석유화학	아세안(20.8%), 싱가포르(25.3%), 칠레(20.1%), EFTA(25.2%)	EFTA(14.9%)

1) 각각 발효후 칠레는 5년간, 싱가포르는 3년간, EFTA는 2년간, 아세안은 1년간 대상대국 및 동기간 대세계 연평균증가율과 비교한 수치임
*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본 ('06) 3.3% → ('07) 3.7% → ('08) 4.7%이다.

상대국의 FTA 체결이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

아세안의 경우 중-아세안 FTA가 '05.7월에 한국보다 앞서 발효되었으며, 일-아세안 FTA가 '08.12월 발효되어, 3개국의 대아세안 품목별 양허수준이 향후 수출증대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 FTA나 한-EU FTA가 발효된다면 현지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국·EU와 중국·일본간 FTA는 논의단계에 있지 않다.

업종별로는 섬유,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부품은 전반적으로 수출이 많이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는 수입이 많이 증가했다.

섬유·철강·석유화학의 경우 체결국 모두에 대해, 일반기계는 EFTA를 제외하고 발효후 수출증가율이 대세계 수출증가율을 상회했다. 한편 자동차/부품은 칠레·아세안에 대해, 전기전자는 칠레에 대해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전기전자는 수입이 증가

수입 측면에서 전기전자는 칠레를 제외한 3개국으로부터 발효후 수입증가율이 대세계 수입증가율을 상회했고, 자동차/부품은 對아세안·EFTA 수입이, 섬유는 對아세안 수입이, 일반기계는 對EFTA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식경제부는 보호주의 확산으로 교역축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FTA 체결로 인한 교역확대 효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직 활용도 제고 여지가 큰 한-아세안 FTA 활용을 위해 국내수출업자 및 현지 buyer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 등 FTA 활용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경쟁국과의 시장선점 효과를 고려하여, 한-미, 한-EU FTA의 조속한 비준, 타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칠레 아세안에서 증가

업종별 수출입 효과를 살펴보면, 자동차/부품의 경우, 수출에서 FTA 발효후 칠레·아세안을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칠레로는 5년간 연평균 수출

〈자동차/부품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

	수출				수입			
	발효전 3년간		발효후 ¹⁾		발효전 3년간		발효후 ¹⁾	
	대상대국	대세계	대상대국	대세계 ²⁾	대상대국	대세계	대상대국	대세계 ²⁾
칠레	△4.8%	18.2%	20.5%	9.7%	△25.6%	24.8%	6.0%	11.4%
싱가포르	36.6%	29.0%	△11.5%	5.2%	△5.7%	13.9%	12.5%	13.3%
EFTA	23.2%	25.4%	△13.6%	13.8%	46.9%	16.6%	52.9%	23.5%
아세안	△4.7%	19.3%	77.3%	13.7%	22.8%	18.9%	66.0%	25.3%

1) 각각 발효후 칠레는 5년간, 싱가포르는 3년간, EFTA는 2년간, 아세안은 1년간 연평균 수치임

2) 각각 발효후 칠레는 5년간, 싱가포르는 3년간, EFTA는 2년간, 아세안은 1년간 동기간의 대세계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임

*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증가율이 20%에 달하며, '07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칠레 1위의 자동차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칠레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8.8%(03)에서 29.3%(07)로 급증했다.

아세안으로는 FTA 홍보효과로 A/S부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발효후 수출이 77% 증가했다. 다만, 싱가포르/EFTA로는 발효후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낮은 관세율, 협소한 시장규모 등에 따른 요인으로 평가 가능한 것이다. 싱가포르와 EFTA 국가들(스위스 제외)은 자동차가 무관세이다. 수입에서, 발효후 EFTA·아세안으로부터 수입증가율이 크게 나타났으나, 규모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EFTA·아세안에서의 자동차/부품 수입은 각각 대세계 수입의 0.1%, 1.2% 수준('08년)이다.

전기전자의 경우, 수출에서, 칠레를 제외하고는 발효후 수출확대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 칠레와는 칼라TV, 무선통신기기 등의 현지시장 확대 등과 맞물려 발효후 전기전자제품 수출증가율이 대세계 증가율을 2배 이상 상회했다.

전기전자의 수출은 칠레에서 2배 이상 상회

아세안에 대해서는 경우 발효후 1차년도에는 수출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높고 수출비중도 전세계의 9.4%로 관세철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09년 이후 긍정적 효과 기대된다. 관세율은 무선통신기기(최대 20%), 영상기기(최대 30%), TV수상기(최대 35%) 등이다. 한편, 싱가포르, EFTA 국가들은 전자제품 관세율이 낮아 수출확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에서, EFTA, 아세안 등을 기준으로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EFTA로부터는 배전 및 제어기, 자동제어기 부품 등 수출용 원부자재 중심이며, 금액은 미미(대세계 수입의 0.8%)하다.

對아세안 수입비중은 15.7%로 높으나, 대부분 저부가 제품 및 한국 투자기업으로부터의 역수입 중심으로 큰 위협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베트남, 태국, 말련, 인니, 필리핀), LG전자(베트남, 태국, 인니) 등이다.

〈전기전자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

	수출				수입			
	발효전 3년간		발효후 ¹⁾		발효전 3년간		발효후 ¹⁾	
	대상대국	대세계	대상대국	대세계 ²⁾	대상대국	대세계	대상대국	대세계 ²⁾
칠레	△4.8%	18.2%	20.5%	9.7%	△25.6%	24.8%	6.0%	11.4%
싱가포르	36.6%	29.0%	△11.5%	5.2%	△5.7%	13.9%	12.5%	13.3%
EFTA	23.2%	25.4%	△13.6%	13.8%	46.9%	16.6%	52.9%	23.5%
아세안	△4.7%	19.3%	77.3%	13.7%	22.8%	18.9%	66.0%	25.3%

1) 각각 발효후 칠레는 5년간, 싱가포르는 3년간, EFTA는 2년간, 아세안은 1년간 연평균 수치임
 2) 각각 발효후 칠레는 5년간, 싱가포르는 3년간, EFTA는 2년간, 아세안은 1년간 동기간의 대세계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임
 *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철강의 경우, 수출에서 FTA 체결이후 모든 국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출이 높게 증가했다. 칠레와는 FTA 체결이후 도금강판, 아연도강판 등 철강판(연평균 56.1% 증가)을 중심으로 수출이 연평균 35.8% 증가했다.

철강의 수출은 체결국과 모두 높게 증가

對아세안 수출비중은 16.5%를 차지하며, 특히 향후 수출비중이 높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수출확대 기대된다. 다만, EFTA, 싱가포르는 전품목이 대부분 무관세화 되었으며, 수출비중도 낮아 FTA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나라 대세계 철강수출 중 비중('08)은 EFTA 0.1%, 싱가포르 2.2%이다.

수입에서 칠레, EFTA로부터 체결후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으나 금액이 미미하고, 우리나라는 기 무세화되어 영향은 없다. 우리나라 대세계 철강수입 중 비중('08은 칠레 0.2%, EFTA 0.7%이다.

일반기계의 경우, 수출에서 칠레, 아세안 등으로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칠레 일반기계 수출은 대세계 수출의 2배 이상의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이는 조기 관세철폐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FTA 발효이후 연평균 수출증가율(5년간)은 대칠레 44.3%, 대세계 19.1%이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력수출국(전세계 수출의 7.9%)으로, 관세율이 높고 한국이 경쟁력 있는 중급기술제품 수요가 높아 향후 수출확대 기대된다. 기계품목 평균관세율은 베트남 34.8%, 말련 24.3%, 인니 15.2%, 캄보디아 16.2% 등이다.

일반기계는 조기 관세철폐 효과 반영되어

EFTA,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품목이 이미 무관세화 되었으며, 수출비중도 낮아 FTA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기계류 평균관세율은 싱가포르·노르웨이 무관세, 스위스 0.5%이고, 우리나라 대세계 일반기계 수출 중 비중('08)은 EFTA 0.1%, 싱가포르 1.3%이다.

“

FTA 체결 상대국(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과의 교역은

절대적·상대적으로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후 상대국과의 연평균 교역증가율은 20.5%~31.6%로, 발효전의 3.6%~19.8%에 비해
많게는 8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각각 동기간 대세계 교역증가율과 비교할 경우, 대세계 교역보다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1.3배~1.8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에서 일반기계 무역적자국인 EFTA로부터는 발효 이후 일반기계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주로 기계요소, 펌프 등 수출용 원부자재 중심으로, 우리의 대세계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섬유의 경우, 수출에서 전반적으로 FTA 체결국과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아세안은 우리나라 섬유분야 대세계 수출의 21.6%('08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관세 철폐(0~50%)로 향후에도 높은 수출확대 예상된다.

섬유 수출은 아세안으로 수출확대 예상

'05년 이후 우리기업의 對아세안 투자진출 증가도 수출증대의 한 요인이다. 對아세안 섬유투자(신고기준, 백만불)는 '00 45 → '05 167 → '07 245 → '08 261이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FTA 체결전부터 이미 무관세화 되어 있으며, EFTA·칠레와는 섬유교역이 거의 없어 절대 효과는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대세계 섬유수출 중 비중('08)은 칠레 0.4%, EFTA 0.2%, 싱가포르 0.6%이다. 한편, 싱가포르,

포르, EFTA, 아세안과의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근거가 반영되어 향후 수출확대의 긍정적 요인이다. '08.12월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92개사 중 53개사가 섬유업종 종사한다.

수입에서 발효후 아세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이 증가했다. 특히 對아세안 섬유 수입비중이 높아(대세계 섬유수입의 10.8%), 국내 의류(편물직제) 업체를 중심으로 일부 피해 우려된다. 다만, 이중 對아세안 투자기업으로부터의 역수입비중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